



2004년
2월 15일
제 66호

춘천성시신문

나 집 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지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http://cafe.godpeople.com/ysk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춘천 우두감리교회 “알파(Alpha)컨벤션”은혜 충만

- 알파 컨퍼런스, 성령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 -
-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음전도 사역, 알파코스 -

2004년 2월 2~3일에 우두감리교회 성전에서 알파 컨퍼런스 사역에 관한 집중 강의가 있었다. 이틀간 참석 한 춘천시내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500여명의 성도들은 교회가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준 선교사, 안금남 목사, 유정기 목사, 박인철 목사로 구성된 알파컨퍼런스 강사진은 각각 알파의 원리, 알파의 실제, 목회적 돌봄 및 적용사례, 성령의 모범, 알파의 기도, 알파의 사역, 소그룹, 우두교회 적용사례, 행정 및 교육기관을 주제로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열강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 수 있었다. 강사들은 알파컨퍼런스 일정동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인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직장선교 사역에 나선 이랜드 방선기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주일인 근무자에 대하여 교회와 직장에서 탁월한 알파코스로 영적 재충전의 기회라고 했으며 춘신대 총장은 인사부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강조하

였다. 한국교회에서는 알파코스를 2001년 220개 교회, 2002년 460여 교회로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초부터 700여개 교회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늘어나는 참여교회들을 위하여 규모별 적용모델을 제시하고 토크, 소그룹, 주말수양회 등을 시연하므로 알파코스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알파컨벤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된 제1회 알파컨벤션에서 초창기 알파코스를 한국교회에서 소개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적용모델이 없어 어려움이 컸던 점과 이제는 구체적인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한다는 설명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알파코리아 명예이사장인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는 “바울신학

의 회복”이란 주제로 설교말씀을 전하고 알파코리아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 실제교회 규모별 적용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개척교회인 서울한산감리교회, 100명 미만의 청주분별교회, 200명 내외의 늘푸른침례교회, 300명 내외의 동명교회, 500명 내외의 춘천우두감리교회, 1,000명 내외의 지구촌복음교회와 3,000명 이상의 일산한산감리교회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했으며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충만할 수 있는가? 남은 삶을 어떻게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박인철 목사와 임동호 전도사가 강의했다. 또한 알파를 운영하는 좋은 모델교회인 춘천동부교회와 일산한산감리교회의 알

파영원 자료를 제시하였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일어나야 하며 영혼들을 앉아서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서야 하며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복음이 전파된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이며 말씀과 성령, 치유 사역을 통해 살아있는 복음전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는 알파코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알파코스는 전세계 132개국 10만여 교회들이 적용하고 있으며 풀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장석 커리큘럼이며 불신자 80% 이상이 정착율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전도정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감리회 동부연회 지방회 개회

- 춘천 서지방 2월 23일, 서부교회에서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권오서 감독) 각 지역 지방회가 2월 중에 개최된다. 강원도연회 22개 지방, 598개 교회와 목회자 790명과 27,000여명의 임원 및 교회 대표가 지방별로 모여 일년동안의 전도실적과 교회 예산 및 집행사항을 보고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장로 선거와 연회대표를 선출한다.

(지방별 지방회 일정)
5일 춘천북 / 10일 속초남, 동해남, 철원서 / 12일 홍천서 / 13일 원주동 / 16일 횡성 / 19일 영월, 강릉, 평강, 홍천동 / 21일 영월서 / 23일 춘천서 / 24일 철원동 / 25일 정선 / 26일 속초북, 원주서, 춘천동, 인제 / 27일 태백, 춘천남 / 29일 원주남

제85회 3·1절 기념 연합예배 개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오송룡목사)는 오는 2월 29일 주일 저녁 7시 30분 동부장로교회(임신영 담임목사) 대성전에서 초교파 연합성회로 3·1절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당시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과 아낌없는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3·1절 정신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존중속에 어지러운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거듭나 시민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춘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3·1절 연합성회에 당연히 참여하여 한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강사: 강상삼 목사: 춘신대학교 / 신학대학장 / 현(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 현(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교위원장 (*문의:연합회 총무 지용한 목사 H.P.011-372-6200)

중앙장로교회 목장세미나 교육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담임목사)는 2월 6일 (금) 오전 11시 본교회성전 1층에서 ‘중앙목장’과 ‘성서화목장’ 가족을 대상으로 2004년도 목장교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목사와 전도사,



사공정 목사

시기는 일을 한다. 목장교회는 바로 생명(Life)이다. 즉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나게 하며 기존교회에서 지치고 상치된 자들에게 역사하여 번식하고 활동하게 하는 곳이다.

목장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목장교회 모인 나눔지’란 교재를 통해 교육받고 영성훈련에 이어 세족식이 거행되었다.

목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을 담아가고 문제해결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위로 받는다. 중앙장로교회는 앞으로 20개 목장교회를 만들어 얼마나 모이느냐 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 건강한 목장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요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 말씀을 통한 삶의 나눔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시본부 실행위원회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오송룡목사)는 지난 1월 16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에서 결의한 장관수정 내용을 검토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을 추가 추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대광침례교회 조영준 목사를, 차장에 늘사랑장로교회 정재호 목사를 인선하였으며 춘천성시신문 편집장에 조종환 목사를 임명하였다.

제9회 춘천 직장선교연합 찬양대회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경우목사)는 2월 17일(화) 오후 7시 동부장로교회 소강당에서 찬양대회를 개최했다. 모든 직장선교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본 행사는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직장선교회의 화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로 9회째 맞는 찬양대회는 매년 10여개 이상의 팀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찬양과 연주, 율동으로 감동을 주고 있으며 새대를 초월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즐거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행사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완벽한 구성과 아이디어로 절적인 면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찬양제에도 변함없이 민경우 회장과 총무 류승근 장로(강원도전선교회)를 비롯해 춘천시성신교회 김동환 안수집사(연합회 감사) 등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이기에 가능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대신총회신학교 · 춘천분교

2004년 신 · 편입생 모집요강

“21C 개혁신학의 요람” 본 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직영 대한신학대학대학교 부설 목회자 후보생 교육기관으로서 신 ·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성화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익의 법칙임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교리표준서를 신조로 하는 신학원으로 교역자 및 평신도 영예요원훈련 및 국내외 선교를 위한 지도자와 전문인력을 배양함에 있다.

【학 교 교 훈】

주님께 충성(忠誠)
타인에게 겸손(謙遜)
자기에게 진실(眞實)

■ 총회장: 김삼복 목사 ■ 이사장: 최복규 박사
■ 총장: 손다윗 박사 ■ 연구원장: 이무용 박사
■ 본교이사장: 김광섭 목사 ■ 본교학장: 사공정 목사



본교 이사장
김광섭 목사
(홍원회파교회)



본교 학장
사공정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직영교역자양성원 - 대신총회신학교 · 춘천분교 모집요강 -

초교파적으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I. 모집요강

모집학과	모집과정	정원	구분	자격
대학부과정 (Th. B)	신학과	00명	아간	고졸, 동등자격자
	교육과			
	신학과			
	예전도사과			
평생교육원 (신학연구)	평신도지도과	00명	아간	세례교인, 학력제한없음 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II.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daeshin.jc.tc)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 1부
- 영회장(노회장) 추천서 - 1부
- 반명함판 사진(원서 부착 포함) - 5매
- 주민등록등본 - 1통

III.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접수): 2003년 12월 6일 ~ 2004년 2월 28일
- 전형방법: 서류와 면접 * 면접일: 2004년 2월 28일(토)

- 합격자 발표: 면접 후
- 전형료: 원서대(5,000원) / 전형료(학부과정-3만원)



HomePage: http://daeshin.jc.tc (본교) / 문의 주소: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669-2 TEL: 033)257-2001
교부: 남기덕 목사 H.P. 016-793-1757

대신총회 신학교, 춘천분교

사회불공현상 이대로 바꿀 수 없다

연일 메스컴에 보도되는 실종, 방화, 자살, 납치, 구속사건은 그 도를 넘어 서서 사회불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미치 지난날의 사건과 사고를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 주마다 새롭게 보도되는 사건만 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다. 포천 여중생 압해사건, 피살사건을 비롯해, 여대생 실종사건, 지난 7월에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10여 미터 높이의 고가도로 아래로 내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자신스드들의 거주 일부를 이를 느끼었다. 우리나라는 자살자가 매달 1,000명 가까이 되는 자살대국이 때문이다.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없는 각종 바이러스의 출현도 우리 사회를 공포기운에 몰아넣고 있다. 폐지 불태우기 비롯해 조류독감의 발생이후 급고, 오리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육류제품의 기피현상이 역력하다. 이에 우리의 이웃인 100만명 가까운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도산과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또한 불안한 조짐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가를 책임지고 나가는 여야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정쟁과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구속, 한-일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 잇달아 터지는 각종 비리사건들은 이 사회불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특자는 이를 '해산의 진통'에 비유하기도 한다.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해산의 진통은 있지만 진통 후에는 육통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 상황을 사회불공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큰 도약을 위한 과정으로 볼 것인가는 판단하기 충분하다. 분명 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마13:35). 민족의 위기 때마다 일어났던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며, 아울러 사회적 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겠다.

성서한국의 꿈과 한국교회 초기 신앙정신

'성서한국'이란 말은 1927년 김교신 선생과 합석한 선생을 비롯한 제일 유학생들이 출간한 『성서조선』이란 잡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일본의 내란감상에서 영적 감화를 받고 '성서조선'이란 모토 아래 신앙운동을 전개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정교분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또 일본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는 신학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와 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양자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와 정치의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치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도 부패할 수 있고 성서의 정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정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우리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과 관련하여 이런 기록이 나온다. 1899년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는 사울의 세력이라는 한 양반이 뇌물을 주고 복도 교육의 수령 직위를 얻었다. 그는 그곳에 부임하기 전에 그 고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니 그곳에는 이미 '야소교'(기독교)가 들어갔다는 정보였다. 그러자 그는 '나는 야소교가 있는 저 고을에 가고 싶지 않다. 야소교가 없는 저 땅에 가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야소교 신자들은 스스로가 불의 행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불의도 절대 눈감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관리들 자신도 야소교가 있는 마을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200만명 미만이었다. 그리고 1900년 당시의 우리나라 야소교 신자들은 일만명을 넘지 못했다.

그때 때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야소교인이라 하면 사울처럼 관리들의 불의에도 눈감지 아니하는 경의의 사람들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천만명이 넘는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줄을 알았을 것이다. 성서한국의 꿈과 함께 초기 신앙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추천 열린 교회

담당목사 신성균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426-8 교회사무실 : TEL (033)253-7227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석사순복음교회

담당목사 김재명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45-7 / 교회사무실 TEL (033)261-6041

추천 성시신문을 활용하십시오

교회와 선교의, 기독교관련 모임 또는 개인의 개회예정인 행사, 행사자료(사진, 설교문, 찬송, 간증, 소속단체 소개, 추천도서 소개, 성시, 그림 등)을 한시로는 내용을 성시신문에 게재하시기를 본은 매월 11일까지 A4용지 1매 내의 (분량에 관계없이)의 원고를 다음을 추천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래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팩 : 257-1260 / E-mail: choocelot@hanmail.net

☎ 우편발송: 200-091 춘천시 용주1동 373-90번지 내 성시신문

사도시대의 선교전략으로써 단기선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hort-term mission as ministry strategy of apostles' period -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경에 그 근거가 확실해 한다. 성서신학은 학을 소홀히 하고 실천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용주의나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반대로 성서신학이 선교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론에 거친다면 실제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선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실천적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단기선교가 성경적인 전략임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선교의 최대의 장애물은 이슬람교에 되었다. 선교사 입국 거부되고 선교활동이 금지되는 지역이 많으며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개종자 또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들이 이 지역을 선교한다는 것은 점차 어렵게 되고 있다. 사도시대에 선교사들은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압박을 받았다. 사도시대의 선교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다. 사도시대선교의 전략적인 방법을 신구약성경에서 찾아 현대 선교에 적용하여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선교의 하나님은 선교의 핵심 성경을 통해 단기선교를 지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단기선교의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실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단기 선교의 사례를 구약에서 찾아,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 특히 모세로써 마찰의 단기 선교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평생선교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평생 사역한 장기선교사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순회한 단기 선교 교회로 사역하였다. 단기 선교는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2-3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요나와 예수님과 사도들과 특히 바울의 선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단기선교 사역은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선교의 선구 속에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단기 선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실로 좋은 선교 길과를 얻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선교적 전략을 갖고 사역하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했음을 논하였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3년 동안 세례를 복음화 할 뜻을 성취하시야만 했다. 그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마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위임하셨다. 예수님 역시 형태의 선교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즉 의료선교, 비거주선교, 평신도 선교, 전문인 선교, 직업 선교, 자비량 선교 등 다양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선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기선교의 붐이다. 장기선교사는 퇴조하고 단기선교사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단기선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확고한 성경적인 단기선교관을 정립하여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사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논했다. 특히 창적 접근지역에 선교 방법을 단기선교는 매우 효과적이다. 단기선교를 현대선교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장기선교는 소수의 전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단기선교는 평범하고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선교단체의 까다로운 자격심사와 훈련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간단한 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의 과정만으로도 선교지에 단기선교로 가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과 함께 펼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이미지를 단기선교를 통해 변화시켰다. 단기선교운동으로 자동차 정비사, 간호사, 미용사, 컴퓨터 기술자, 의사 등 평신도가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섬기게 되었다. 사도시대의 선교전략과 현대 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한 방법이 단기선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콜로새 지방에 단기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후에는 기도와 장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교회를 양육하였다. 단기선교에서 보완해야 할 단점이 있다. 훈련 없는 단기선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기선교는 그 틈마다 때때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명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선교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개척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시대의 단기선교 운동은 전통적 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교회의 복과 같은 단기선교를 확장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로서 단기선교를 이해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열매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장기선교와 긴밀한 단기 협력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해외여행을 통한 단기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 여행의 기회는 점점 많아진다. 그리

망을 통해서 단기 선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았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선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선교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즉 의료선교, 비거주선교, 평신도 선교, 전문인 선교, 직업 선교, 자비량 선교 등 다양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선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기선교의 붐이다. 장기선교사는 퇴조하고 단기선교사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단기선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확고한 성경적인 단기선교관을 정립하여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사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논했다. 특히 창적 접근지역에 선교 방법을 단기선교는 매우 효과적이다. 단기선교를 현대선교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장기선교는 소수의 전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단기선교는 평범하고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선교단체의 까다로운 자격심사와 훈련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간단한 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의 과정만으로도 선교지에 단기선교로 가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과 함께 펼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이미지를 단기선교를 통해 변화시켰다. 단기선교운동으로 자동차 정비사, 간호사, 미용사, 컴퓨터 기술자, 의사 등 평신도가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섬기게 되었다. 사도시대의 선교전략과 현대 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한 방법이 단기선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콜로새 지방에 단기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후에는 기도와 장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교회를 양육하였다. 단기선교에서 보완해야 할 단점이 있다. 훈련 없는 단기선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기선교는 그 틈마다 때때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명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선교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개척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시대의 단기선교 운동은 전통적 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교회의 복과 같은 단기선교를 확장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로서 단기선교를 이해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열매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장기선교와 긴밀한 단기 협력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해외여행을 통한 단기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 여행의 기회는 점점 많아진다. 그리

특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 초대교회 초기에 단기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했음을 추적해야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현대 선교 상황에 단기선교가 매우 유용함을 살펴 보았다. 세계선교 운동의 조류가 단기선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현대 선교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는 단기선교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학제와 연구로 단기선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 단기선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역에 헌신함으로써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호 목사
춘천CCC 대표강사



스도인으로 사업이나 유학, 허약연수, 친척 방문, 관광목적으로 외유를 출입하는 자들을 선교지원과 시켜야 한다. 넷째로 특수한 상황에 단기선교를 시행해야 한다. 비자 취득이 어려운 지역이나 선교사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에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선교 전문팀이 선교지를 방문하여 장기선교를 돕는 단기선교를 의미한다. 다섯째로 평신도들 단기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해야 한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는 다양한 환경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민제사장으로 선교의 사명이 있다. 전문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단기선교와 여행하는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선교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기선교가 전략적이다. 여섯째로 단기선교의 많은 장점을 살려야 한다. 단기선교는 선교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단기선교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교지 이해, 선교에 대한 헌신의 계기, 교회 안의 선교운동의 중요, 장기선교에 대한 이해, 교회와 현지 선교사들의 유대 강화, 새로운 사역의 개척, 장기선교사로 지원되는 열매를 경험한다. 일곱째로 철저한 훈련된 단기선교를 시행해야 한다. 단기선교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선교와 동일한 선교 사역이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단기선교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단기선교를 지지하고 교회 역사 속에 활용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 글은 춘천대학교대학원에 제출한 학위논문(Th.M) 요약본입니다.

책과 신앙의 만남

「사림의 기도」 김영봉, IVP

(신앙지도교회 변석규 목사)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리 다방에 붙여진 성경의 바이러스를 소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충실히 살았는가? 지금 현대의 교회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을까? 기도의 오용/남용이 아닐까?

저자는 「사림의 기도」를 우리를 성령과 만나게 하고 감동시켜 준다. 성경에 감동되면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되면 이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했다.

기도와 ... 남용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

다 보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듯이, 기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말의 홍수 속에서 '거짓 만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과의 사림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기도의 요청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는가? 기도 자체에는 이미 용담이 담겨져 있다는 약속을 잊은 채 말이다. 저자는 많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지만,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유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기도」라고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자각」에 이르게 하는데, 「말」 없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자신의 모든 말이 이루어져 있음

을 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저자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영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을 넓고 예민」하게 만들며,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금식기도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경고한다. 금식의 전향은 시간의 전향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의 전향에 있다고 한다.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금식 자체가 마치 영적 훈련인 것처럼 자랑할 만한데도 기도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기도의 기도」저자는 신학자로서 기도의 깊이와 신학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바르게 아는 것 못지 않게 바르게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그 역, 즉 바르게 실천하는 것 못지 않게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는 또한 중요하게,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지적 포기」와 「신학적 포기」를 더함으로써 기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듯도 풍성하게 보자!

신교회 소식 · 교계 단신

- 춘천제일교회(박성호 담임목사) 여전교회연합회는 2월 8일 주일 김상수 목사(원성제일교회)를 초청강사로 모시고 헌신예배를 드렸다.
- 춘천중앙성경교회(유동진 담임목사)는 지난 2월 9일 '11월 화보교과회' 유충열 목사를 강사로 초청, 관제전도부흥회를 개최했다.
- 춘천시상장교회(김성대 담임목사)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 사립중앙성경교회(최성도 담임목사)는 2월 12일 오전 11시 예비교사수련회를 개최하고 13일까지 성경공부, 큐티 및 훈련대명론에서 친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 춘천신성교회(김창수 담임목사) 종교동부는 2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원주제일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 춘천중앙성경교회(권오성 담임)는 2004 새생명축제, 태산자 작정을 위한 특별세례기도회를 21(토)까지 가지며 2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대일 제자양육자를 위한 1일 집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순복음제일교회(하기철 담임목사)는 2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본교회 성전에서 심령대부흥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춘천지역 교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TEL. (033)257-3512 교회위치: 방송통신대학교 춘천점앞 사이, 월드컵버린 옆 순복음제일교회(☎259-3000)

예망교회 중보기도세미나 개최

예망교회(조영춘 담임목사)는 오는 2월 26일(목)·28일(토) 본교회에서 중보기도세미나를 개최한다. 예망교회와 주회교와 엘리에엘이 협력하는 금번 세미나는 26일 오후, 27일 오전과 오후, 28일 오전으로 모두 4회 강의가 열릴 예정이며 교파를 초월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모임이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회비는 학생 1만원, 일반인 2만원으로 당일 등록이 가능하다. *예망교회 오시는 길: 춘천경찰서 뒤 소방서 옆 / 문의 ☎252-1004

일본 언어 및 문화 연수 프로그램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춘천에서 조은목 목사를 비롯한 6명의 성도들이 일본 나라바 중보교회(전현규 목사)에서 하는 일본 언어 및 문화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을 일본인에게 언어 연수를 받고 오 방전도, 저녁 시간에 일본 음식 및 한국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일본 선교 전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일본에는 현재 7000여 교회 중(성도는 대부분의 교회가 10-20명이다) 목사가 아닌 계시는 무목교회가 1,700개이고 그나마 몇 안 되는 신학교에 신학생이 수백에서 수천명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교령에 정년도 없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계시고 또 신학교를 졸업해도 일할 수 있는 임지가 실히 부족한 형편인데 우리 한국이 일본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만 된다면 놀라운 추수밭이 바로 지적에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언어는 비교적 배우기 쉽지만 문화와 예절의 수단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사전지식 및 교육이 없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이 현지에서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이다. 한 예로, 일본에 한국 선교사가 약 600명이 나가 있지만 이들 중 순수하게 일본인신교를 하는 분들은 5%정도이고 대부분은 한국교인 목회를 하고 계신 실정이라고 한다. 또 일본 교단은 보수적이고 격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 교단과 좋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일하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일종의 인턴십 과정을 받아서 일본 교단의 정통을 받은 후 무목교회에 파송된다는 지. 이미 성공적으로 일하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있을 놀라운 부흥의 때에 수많은 일본인들을 교회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제1회 [일본 언어 및 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춘천 일본신학교(회장: 한국 목사)에서는 일본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하여 춘천에서 소정의 교육(일본어 포함)을 시킨 다음 일본 현지 훈련을 거쳐 적격직소에 배치하여 교회 개척을 할것에 해 나가는 사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처: 메트로신교대 기정희 권사 H.P.011-9901-1149

5분메시지란

결과보다 과정



유진 현 목사 (남춘천성교회) (기독교연구학회 부회장)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아침 조식간에 교장 선생님의 혼화 말씀 중에서 뇌리에 박히는 말씀이 있었다. '인생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그 때부터 내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기본 철학 중 하나가 되었다.

정말로 인생에서 무슨 결과를 이루었느냐 보다 그 과정을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우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아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고 결국 결과도 악하게 이뤄진다. 악한 뿌리에서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반대로 과정을 중시하면 그 과정에서 선한 삶과 선한 성품을 지니다보면 결과도 선하게 이뤄지게 마련이다. 선한 뿌리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선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 악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악한 과정에서 결국 악한 결과, 악한 열매만 이뤄졌음을 역사가 이미 백백하게 증명해 보였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쉽게 지치게 되고 결국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그러나 과정을 중시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쉽게 지치지 않고 결국 좋은 결과도 얻게 된다. *토끼

와 거북이' 동화에 나타난 대로이다. 토끼는 결과에만 집착하여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쉽게 지쳐버려서 도중에 쉬게 되고 결국 패배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거북이는 결과에 초연하며 다한 성실하게 걸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꾸준히 나아간 결과 결국 승리

의 결과도 얻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순간적 행복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된다. 그러나 과정을 중시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과정을 즐기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결국 결과도 더 좋게 될 수 밖에 없고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다.

등산을 할 때 정상 정복의 결과에만 집착하다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상 정복의 기쁨은 너무나 작아진다. 그러나 태도를 바꿔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며 즐기며 올라가면 별로 힘들지 않게 즐겁게 올라가게 되고 정상 정복의 기쁨도 더 크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보다 오직 결과에만 집착하며, 선과 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오늘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나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2004 춘천기독교문화제 행사 계획

춘천기독교연합회 사회 문화 단체 협의(대표 한국 목사)는 문화제 매개로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서로 연합, 교류를 통해 춘천의 복음화 성숙화를 이루고 다양한 기독교문화를 보급해 춘천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독교문화제를 실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행사는 기독교연합회와 성서화운동본부, CBS춘천방송과 공동주최자로, 교회연합이나 단체연합이 분야별 주관자로서 금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독교문화제 주관자를 가지고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며 기독교적 우수 문화를 크리스찬 시민들의 삶에 침투하여 변화되는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춘천지역에서는 부활절 새벽예배, 십자가 시가행진, 부활절 음악연주회 등의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다. 여기에 CCM열린음악회, 오케라, 연극, 연합성가제, 기독교문화제, 마일, 인형극, 기독교미술전, 축구 등 친선 체육대회, 찬양예술회, 연합부흥회 등으로 확대해 진정한 기독교의 축제와 화합의 절기로 승화시켜 문화의 도시, 축제의 도시 춘천으로 발전시켜 차별화된 기독교 문화도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가정문제, 도덕불감증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교회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해 담담해 나가야만 한다. 3,40대 이상의 청장년층을 겨냥해 문화의 빈곤함을 충속시켜 주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회복에 일조하며 어린이, 청소년, 장년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을 초월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사가 있는 350여 교회

참여하는 행사로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건전한 기독교문화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뿌리깊은 교단, 교회주의를 타파하고 연합해 기독교문화 성장발전 함께 한다던 성서회의 발전지로서 바람직한 기독교문화에 대한 전국, 세계의 모델이 될 것이다. 기독교문화제는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인 매년 5월 열릴 예정이며 올해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장소는 어린이회관 야외음악당, 춘천문화예술회관, 호반실내체육관, 교회 등 신자나 불신자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장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문화가 실현되고 우리 교단에 정착하는 그 순간,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낸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시민위 기독교문화제라 기록될 것이며 기독교의 건전한 문화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정착시켜 주는 행사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성서화운동본부, 춘천지역의 350여 교회들과 협력클럽, 춘천기독교강요연합회, 춘천기독교실업인연합회, 40여개 직장신도들로 구성된 춘천기독교직장신교연합회, 춘천대서기사신교연합회, YMCA, YWCA, 강원기독교음악협회, 기독교미술인연합회, 춘천시기독교주요교회 등 단체들, CCC, IVF, JDM, YWAM, 한사관성교회, 각 교회 청년대학부와 청소년 기독교 동아리 예수사관운동, 각 교회 종교동부 청소년, 어린이 전도협회, CBS춘천노년회합창단, 각 교회 유초등동부 어린이 등 하나님 안에서 형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세계선교연구원 겨울 집중수업



춘천 메트로신교대 내 세계선교연구원에서는 1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선교사 지망생들을 위한 신학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 시작하여 2년 과정이 끝나고 2004년 1월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약 15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세계선교연구원은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우선 자신의 직업이나 학업을 유지하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학문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년에 14주씩 집중수업 방식으로, 90분 강의를 한 주간에 14시간씩 운영한다. 방학동안에 하모리 서울의 유명신학교의 유수한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대학 교수님, 초중고 교사, 대학생, 직장인들이 진지하고 성실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올 겨울방학 교수님으로는 조직신학에 박민인 칼빈신학대학원장, 구약신학에 유종진 메트로신교대 교수장, 선교학에 아세안신학대학원 이교수 교수님, 기독교 역사학에

웨스트민스터 최은수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에 홍신대 학교 이상원 교수님, 신약학에 함동신학대학교 유영기 교수님과 영국 'Banner of Truth'에서 오랫동안 권집장을 하고 신학대학 학장을 하고 계신 Maurice Roberts 목사님 등이 강의를 해 주었다. 앞으로 인생의 중반(40대 혹은 50대 초반)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놓기 위하여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을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억 2000만 인구 중 신자가 50만 정도에 교회가 7000개 밖에 안 되는 미천도 종족일 뿐 만 아니라 일본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하여 청년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사역해야 할 추수밭이라 볼 수 있다. 세계선교연구원은 학점은행시므로 학생은 수시로 뚫고 있으며 면면제이다.

*연락처: 메트로신교대 기정희 권사 H.P.011-9901-1149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는
이슬몬테소리선교원
한글 · 수학 · 영어 · 예배 · 성구암송 · 학습연령에 따른 교육
●유아부(0세-3세) ●유아부(4세-5세)
●유치부(6세-7세) ●초등부(1학년-6학년)
원장 최주라 권장(순복음하나교회)
▶교육상담 ☎(033)255-0507 H.P.019-292-3183
위치: 춘천시 후평1동 73-14번지 만현리교회 신협조합 옆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제일교회
담임목사 하 기 철
"춘천시민에게 꿈과 희망과 축복을 주는 교회"
춘천시 효자1동 591-45번지
교회사무실 T.(033)257-3512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
새봄,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흥천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CBS춘천방송이 후원하는 청소년 열린음악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출연: 소리샘, 위드, 조수아, CUBE, 이유미
▶일시: 2004년 2월 23일(월) 저녁 7시 / ▶장 소: 흥천고등학교 체육관
▶주최: 흥천교회협의회 / ▶후원: CBS춘천방송
흥천읍 교회협의회 · CBS춘천방송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2월 24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최영근 목사(만천강교회) 사회: 안대: 강원도정교회
기도·특송: 강원도정 직장선교회 피아노반주: 박은경
일시: 3월 30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미정 사회: 안대: 춘천시정선교회
기도·특송: 춘천시정 직장선교회 피아노반주: 박은경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위원장 공영준 H.P.017-370-8537
(연락처: 남부) 우측로 202267-02-050582 메글: 출판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 부 교 회
담임목사 박 영 준
원로목사: 노정만
교육전도사: 조영현
장로: 박승태 한길홍 김용환
장준홍 이상태 이상범
춘천시 소양로 2가 93-34번지
교회사무실 T.(033)254-2183

기독교타임즈 동부연회 지사
지사장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구독신청 및 회화사, 광고제세 등 의뢰하실 분은
TEL.(033)254-7367 / H.P.011-9901-3511
기독교타임즈 춘천지사: 춘천시 옥천동 6-7번지

선교헌신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 OL 세미나 -

하나님은 진세계를 선교하시려는 방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광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거룩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있는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선교 지도자가 한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 상해하는 일에는 나도 마음이 상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적 마음이 부은 바른 사람들에게 사도적 열정이 일한다. 그래서 자기의 안장된 자리를 버리고 감고자로 나가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선교대회나 선교학교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헌신자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교회나 선교단체들의 지도자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돌보는 사역을 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어떤 조망도를 가지고 선교 훈련생들을 돌볼 것인가?

여 약 5,000m 정도에 베이스캠프(Set up Base Camp)를 설치하고 등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등반에 참여할 동반대원들은 준비하여 고스캠프(Set up High camp)로 이동하여 기후와 건강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상에 향해 등정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으로 등반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하행의 과정도 동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베이스 캠프로 복귀할 때까지 과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 사람의 선교 헌신자를 돕는데 있어서도 이와같은 훈련자들을 미리 점검하고 숙지시킬 때 선교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교 훈련생을 돕는데 다음과 같은 조망도를 가지고 도울 수 있다.

- 1 베이스캠프: 트레일 여정을 위한 준비 과정
- 2 트레일헤드: 훈련 참가자 각각의 독특한 열성과 성품 발견
- 3 정상: 훈련 참가자의 목표 구성 등기
- 4 트레일: 훈련 참가자들이 정상까지의 여정에 힘 실어주기
- 5 트레일테일: 훈련 참가자들이 각각의 독특한 여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1 베이스캠프: 트레일 여정을 위한 준비 과정
하루라도 빨리 이 트레일 여정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잠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코치로서 당신은 지혜와 인내력을 발휘하여 훈련 참가자들이 베이스캠프라는 안전지대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최대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한다. 왜냐하면 훈련 참가자들이 베이스캠프에서 함께 구축한 것들이 향후 남은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코치는 훈련 참가자들이 이 트레일 여정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교 훈련생들을 돕는 코치가 되려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삶과 인격을 나눌 수 있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폴 스타리의 "멘토링과 코치"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성공적인 멘토의 모습과 특징이 무엇인지, 또한 멘토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훌륭한 멘토의 모델을 찾아서 적용하여 보는 것도 좋겠다. *훈련참가자와 인격적인 헌신관계 맺기: 이 과정을 통해 코치나 훈련생은 필경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동시에 큰 도전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좋은 때인 힘을 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베이스캠프에서 형성된 인격적 헌신관계이다. 코치와

최영조 목사
MP코디네이터
(칼리리칼리교회)



훈련생이 상호 인격적 헌신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해 훈련생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레일 여정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로 인해 코치와 훈련생의 상호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수록, 이 인격적 헌신관계를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호헌신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목상에 보기를 바란다. 함께 이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각자가 맡은 훈련생과 인격적 헌신 관계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에 사인을 한 후 이 내용을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원본은 훈련생에게 사본은 코치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제 코치와 훈련생은 매주 일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약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7주와 후에는 베이스캠프에서 트레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가치 발견하는 법, 코치와 함께 저널쓰는 법, 행동의 단계표 작성하는 법, 그밖의 트레일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대해서 나눌 것이다.)



직장선교연합 2004년 첫 정오예배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경국장로)는 지난 1월 27일(화) 정오 동부장로교회에서 금년 첫 정오예배를 드렸다. 춘천의 각 직장선교회 회원들은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참석할 수 있었으며 직장선교연합회장 민경국 장로의 사리로 시작된 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철수 장로의 대표기도와 직장선교연합회 임원진의 특별찬양, 조총련 지도목사의 "나의 기쁨을 빼앗아 자가 없다"(살전 5:16)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었다. 바울 사도는 대성령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조건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것은 곧 법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복음은 기쁜 소리이다. 직장인 선교사로 사역하는 회원들은 이 기쁨을 나와 가정은 물론 직장에 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기쁨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교했다. 정오예배는 지난 12년 동안 거르지 않고 매월 드려져 왔다. 바로 정오예배를 통하여 직장선교회들의 협력과 활성화가 가능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직장선교연합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



춘천 성시신문 편집위원회의

지난 1월 30일(금) 성시신문 사무실에서 춘천 성시신문 편집위원회를 가졌다. 편집장 조총련 목사가 주재하고 10인의 목사, 장로 편집위원들이 참석하여 신년편집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부족한 면들을 평가하고 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신문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편집위원회를 넓혀 교단별로 확보하기로 하고 교회별 행사들을 넓히기로 하고, 독자들의 글을 취사선택해 신년 등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밖에 다양하고 좋은 의견



들이 나왔고 현지에 적용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합의했으며 회의를 마무리한 후, 신종철 장로님이 마련해 준 만찬으로 담소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격려했다.

춘천 안보리감리교회 신축 봉헌

춘천의 관문, 춘천시 서면 안보리 120번지에 아담한 교회가 건립되었다. 지난 1월 29일(목) 봉헌예배를 드린 본교회는 경춘권역교회가 있어 우상과 참신의 본거지인 안보(安保)리교회(담임, 임용홍목사)이다. 1987년 개척되어 교인수 30명의 작은 교회지만 우상과 불상(부처)의 땅에 교회를 건립하여 영적안보(靈的安)를 지키자고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그 결과, 대지 400평에 예배당 40평, 유아실 12평, 사택 23평 등 총 83평을 2억2천만원으로 건립하여 봉헌하였고 특히 감격적인 일은 10년 이상 무속인으로 있던 이와 불교를 신봉하



던 이가 모두 교인이 되어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여 지금은 열심있는 감리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임용홍 목사와 교인들의 믿음은 뜻밖의 안보리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은사로 온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신은 김기태 장로님이 직접 강된 일보사 담당자님께 드셨습니다.

길병기 장로 동부연회 실업인 선교회장 선출



동부연회 실업인선교회(제7대 회장 김기태 장로)는 지난 1월 31일 춘천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회장으로 원주 서원교회 길병기 장로를 선출한 후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과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겠다. 동부연회 실업인선교회는 선교와 봉사를 위한 기독교실업인회로서 기도회와 봉사로 헌신한다. (신임 임원) ▲회장: 길병기(원주서원) ▲부회장: 이학규(춘천석사) ▲총무: 강동식(평창중앙) ▲회계: 장기호(춘천중앙) ▲감사: 김수길(주문진)



이 땅에 그리스도와 불어오기를...

광주 · 전남 사외복지협의회 사랑의 봉사단

《기독교법인 실버타운 설립》

생활관 A동(50명) · C동(92명) 운영

【사랑의 봉사단 현재 시행업무】

- ◆이웃봉사: 팀장 김남근, 문국유, 안상배, 박성숙의 100여명
- ◆목회봉사: 팀장 조금현, 박종주 / 시작장애인 견련 2회
- ◆시각장애인 나들이: 팀장 허은주, 박형숙, 강정자, 강성임의 120여명
- ◆집고침, 농기구 A/S: 팀장 오진균, 박영만, 여학규, 김상수
- ◆농기구계류장 상시사용 지원센터 운영: 김두식봉사단 30명
- ◆나눔: 푸드뱅크 지원 / 대중배치(환경사업) / 도매
- ◆아나바다: 현우수집, 적소에 나눔(순복음교회)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조용 931-04-088929 (예금주: 사랑의 봉사단 조규권)

농협 607-12-389271 (예금주: 사랑의 봉사단 조규권)

사무실: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37-16

☎(062)653-1114, 678-6647 / FAX.(062)653-5644

사랑의 자원봉사단 단장 조 규 권

재단법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설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C.C.C.어린이집은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원아를 돌보며 풍부한 인적 자원과 넓은 실내 · 외 전용 놀이공간, 대강당 및 4개의 교실을 활용한 최상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 원목 정경호 목사(춘천C.C.C.대표) -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가득’



♥ 원 아 모 집 ♥

- 모집인원: 4개반 각 0명 (※각반 약간별 선착순 모집)
- 씨앗반(4세) 돌기반(5세)
- 열매반(6세) 합기반(7세)
- 영재반: 저소득층 자녀, 형제 강민
- 접수처: 033)255-5776 254-5776 C.C.C.어린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춘천지회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한국해비타트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원 원장으로 있는 대현인 신부가 그의 저서에서 해비타트운동 소개했고, 사무총장이었던 고광민 박사가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회복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업에 참여했고 1992년 1월 정경호 전까지 장관을 이 사장으로 추대해 온정기로서 맡아보셨습니다.

- 주변의 공감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가정(Home)' 회복
- 계속한 공동체적 협력 ○국제적인 협력
- 평범한 자원봉사자 통한 공동체 ○인구증가의 생산적 자립 운동

“한국 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기독교 자원봉사 단체 (NGO)입니다.”

◆기독교 사역 ◆교회의 동역자◆
해비타트는 집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헌신하고 헌신적인 방법으로 건립된 집들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해비타트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축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축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축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원봉사신청 / 건축자원봉사신청 / 사랑의 후원금 내기 신청 및 문의는
TEL: (033)254-0009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강원도 춘천시 오성동 9-1 TEL:(033)254-0009 / FAX:(033)254-8877
E-mail: chuncheon@habitat.or.kr / 해비타트 홈페이지 http://habitat.or.kr